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6.20.(월) 조간 2022.6.19.(일) 11:00	배포 일시	2022. 6. 17.(금) 오후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임성순 (044-200-5950)
		담당자	사무관	이주연 (044-200-5955)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이제는 안전체크海로

- 해양수산부, 모바일 항만건설안전점검 시스템 도입(6.20.(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효율적인 항만건설 안전관리를 위해 6월 20일(월)부터 50억 원 이상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공사 현장관리자로 하여금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건설공사의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서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다보니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3월부터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개발하였고, 6월 20일(월)부터 50억 원 이상 항만공사부터 사용하도록 하였다. 안전체크海를 활용해 점검사항과 현장 사진을 바로 입력하면 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에 전달되어 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력한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별도의 문서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동안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등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었던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공사현장관리자는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www.poms.portcals.go.kr/sapa/m)'에 접속하면 안전체크海를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용자들이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항만건설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전 교육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시작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건설 안전 데이터의 공동활용, 그리고 점검 후 즉시 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건설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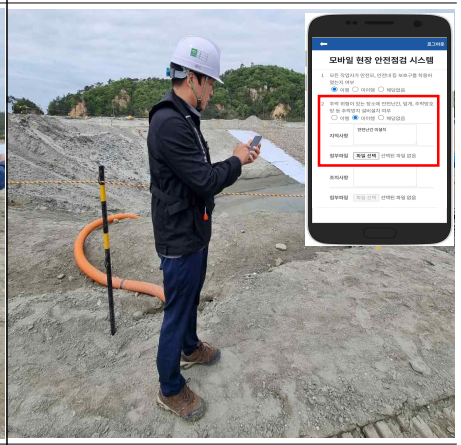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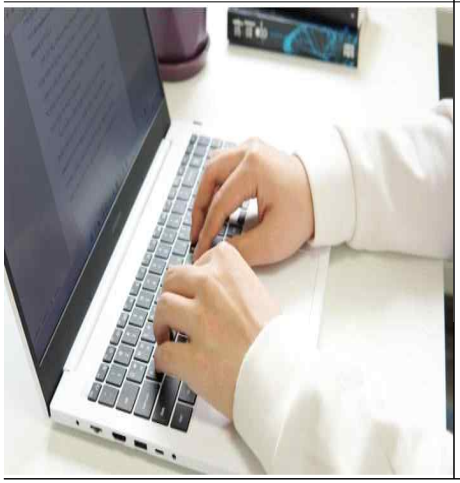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건설현장의 신속하고 간편한 모바일 안전점검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유해·위험요인들을 빠르게 개선하여, 항만건설현장 내 종사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 개요

○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 → 유해·위험요소 즉시 조치

기존	개선
(점검내용) 수기작성	(점검내용) 모바일 입력
	
(결과보고서) 별도 작성 - 기간 소요	(결과보고서) 자동생성 - 즉시
	

□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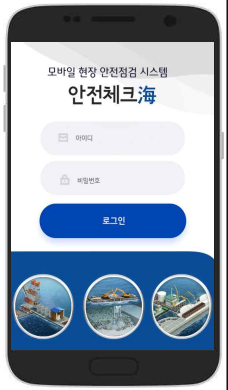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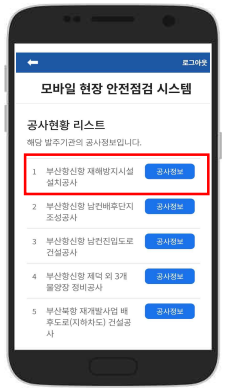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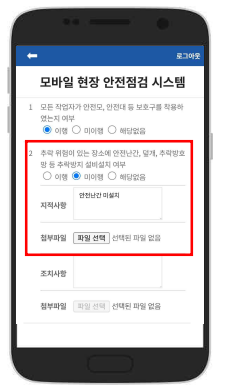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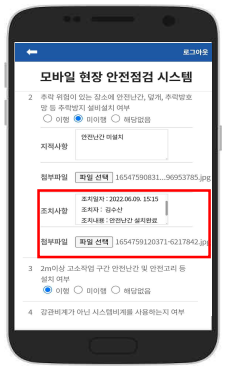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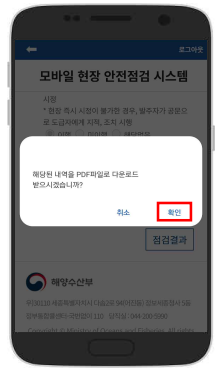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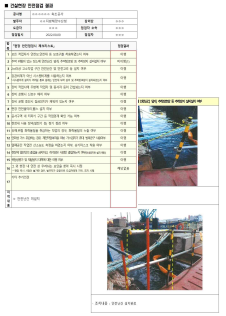
○ **(점검대상)** 해양수산부 항만국 소관 항만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이상)

○ **(점검항목)**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보호구 착용, 추락방지설비 설치, 고소(高所)작업 시 구간 안전고리 등 설치, 시스템 비계 사용, 장비 작업시 작업자 간섭, 장비 운행시 신호수 배치, 장비운행 중단시 잠금 등

○ **(활용내용)** ①모바일로 현장에서 점검내용 입력(점검자) 및 결과 보고서 자동생성, ②지적내용 확인 후 즉시 조치 및 조치결과 바로 입력(시공사), ③조치결과 확인 등 실시간 모니터링(점검자), ④항만건설 안전 DB 관리

○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 주요기능**

① 접속 및 로그인	② 공사현장 선택	③ 안전점검 시작하기	④ 점검내용작성(점검자)
			
⑤ 지적사항 확인(시공사)	**⑥ 조치사항 입력(시공사)**	**⑦ 점검결과 다운로드**	**⑧ 결과 보고서 자동생성**